

25.05.30.(금)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편의점(CU·GS25)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정책제안

오늘(5/3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식 진행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전국 CU·GS25 가맹점주가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보장과 공정한 가맹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6대 정책과제 제안식이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민병덕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이, CU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최종열 회장, 하동선 사무국장(수정에이스점), GS25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김정열 지역장, 변봉준 총무 등이 참석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편의점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점주들의 생존권은 점점 위협받고 있다.”며 “단순매출 기준으로만 지원을 판단하는 정책, 과도한 폐점위약금 등 현장의 문제들이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위원장은 과거 담배광고 시트지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조선의원 시절 “반투명 시트지가 오히려 강력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관계기관과 점주들이 협의해 금연광고 대체안을 마련한 경험에 있다.”며 “정치는 약자의 언어를 법의 문장으로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과제들 또한 면밀히 검토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카드수수료 및 소상공인 지원기준에 실질수익 반영 ▲안전상비의약품 대체지정 및 취급품목 확대 ▲수익저조 등 불가피한 폐점사유 발생 시 위약금 감면 ▲편의점 폐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가맹점주 단체의 실질적 협상권 보장 및 중재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CU가맹점주협의회 최종열 회장은 “많은 점주들이 자신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본사와의 매출배분 구조상 점주에게 불리한 계약이며, 본부가 가맹점에 매출의 일부를 특별장려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폐점 시에는 기 지급한 특별장려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점주가 수익저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점포운영이 불가능해도 폐점이 어려운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GS25가맹점주협의회 변봉준 총무는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 등 상품으로 인해 매출은 높게 잡히지만 수익은 낮다.” 며 “매출이 아니라 수익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돼야 하며, 매출기준의 소상공인 정부지원도 개선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편의점은 심야시간대에도 상비약을 판매하며 국민건강을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음에도 지정품목이 지나치게 적어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상비약 지정품목 확대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이번 정책제안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라며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